

환헤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지수 상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해외투자 수익률에서 환율·헤지비용·추적오차를 구분해 본다

2026년 7월 1일 원·달러 환율은 1,550.59원이었다. 8월 7일에는 1,409.94원이었다. 다섯 주 사이에 140.65원 내렸다. 같은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상품 두 개도 같았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1년 수익률이 21.09%와 15.26%다.

비교한 두 상품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환헤지 여부가 다르고 1년 수익률 차이는 5.83%p였다. 이 차이에는 환율과 헤지비용뿐 아니라 보수, 추적오차, 분배금 처리와 평가시점 차이가 포함될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품은 이름의 (H) 표기로 환헤지 여부를 알린다. 개별 해외주식은 상품명에 아니라 실제 환전환율과 거래내역,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외화 손익으로 환율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8월 13일	2026년 8월 13일	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해외투자 수익률에 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투자자가 환율 효과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품은 환헤지 여부를 이름의 (H) 표기로 알린다. 같은 지수를 따르는 비교 대상 두 상품의 1년 수익률은 21.09%와 15.26%였다. 이 차이에는 환율과 헤지비용뿐 아니라 보수, 추적오차, 분배금 처리와 평가시점 차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부를 환율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상품은 이름의 (H) 표기와 월간 운용보고서의 기초지수·상품 수익률, 총보수와 추적오차를 함께 확인한다.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했다면 거래내역의 실제 환전환율·수수료와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외화 손익을 확인한다.

한눈에

한 운용사가 같은 지수를 따르는 두 상품을 나란히 판다. 이름 뒤에 (H)가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1년 수익률은 15.26%와 21.09%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뉴욕 정오 매매율이다. 국내 매매기준율과 값이 조금 다를 수 있다.
- 수익률은 세전이고 분배금을 다시 넣었다고 본 값이다. 운용보고서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겼다.
- 기간을 나눈 수익률은 연으로 바꾸지 않은 값이다. 미국 상품만 연으로 바꾼 값을 썼다.
- 계산으로 뽑은 환율 뒤편과 실제 환율 변동률은 구간에 따라 최대 1.0%p 어긋난다. 두 값을 함께 실었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환율이 5년 반 동안 32% 올랐다	3
2장	원화로 주문하면 환율은 나중에 정해진다	6
3장	상품에 붙는 표기가 직접 사는 주식에는 없다	8
4장	다른 나라는 낱말로 적는다	13
5장	환손익 표기와 비교 기준의 개선 과제	15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17
부록 가	용어 풀이	19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0

1장

환율이 5년 반 동안 32% 올랐다

해외주식에 넣은 돈은 두 가지 값에 동시에 걸려 있다.

1,550.59원

원·달러 환율

2026년 7월 1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409.94원

같은 해 8월 7일 원·달러 환율

2026년 8월 7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9조 7,133억 원

국내 미국지수 상품 한 개의 순자산

2026년 7월 31일 · 삼성자산운용

해외주식의 원화 기준 수익률에는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이 함께 반영된다.

외화 기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바뀌면 원화 평가액이 달라진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2월 31일 1,086.11원에서 2026년 7월 31일 1,436.81원으로 32.3% 올랐다.¹² 외화 기준 자산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 상당의 달러 자산은 환율 변동만으로 원화 평가액이 약 323만 원 늘어난다.

연평균으로 보면 방향이 더 뚜렷하다. 2018년 1,099.29원, 2021년 1,144.89원, 2025년 1,421.40원이다.³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24.2% 올랐다.

해외주식을 사면 주식과 달러를
함께 산다. 값이 둘인데 화면에
남는 숫자는 하나다.

2026년 안에서도 크게 움직였다

올해 들어 환율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다. 6월 30일 1,548.78원, 7월 1일 1,550.59원까지 올랐다.⁴ 이 조사에서 확인한 2026년 값 가운데 가장 높다.

그다음 한 달 반은 반대였다. 7월 31일 1,436.81원, 8월 7일 1,409.94원이다.⁵ 7월 1일에 견주면 9.1% 낮다. 1,000만 원어치 달러 자산에서 다섯 주 만에 91만 원이 빠진 셈이다.

월평균도 그렇다. 2026년 6월 월평균 1,529.4619원은 2025년 7월보다 10.9% 높다.⁶

환노출

환율 변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평가액이 늘고 내리면 줄어든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품 가운데 이름 뒤에 (H)가 없는 것이 여기 든다.

<표 1> 환율은 5년 반 동안 오르내리며 세 배 가까운 폭을 그렸다

원·달러 환율의 마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단위: 원, %)

날짜	원·달러	직전 마디 대비	자료 종류
2020.12.31	1,086.11	기준	일별
2021.04.09	1,120.84	3.2	일별 · 국내 상품 상장일
2021.12.30	1,188.59	6.0	일별
2022.12.30	1,260.18	6.0	일별
2023.12.29	1,290.97	2.4	일별
2024.12.31	1,477.86	14.5	일별
2025.07.31	1,396.19	-5.5	일별 · 1년 수익률의 출발점
2025.12.31	1,444.55	3.5	일별 · 연초이후의 출발점
2026.06.30	1,548.78	7.2	일별
2026.07.01	1,550.59	0.1	일별 · 확인한 2026년 최고값
2026.07.31	1,436.81	-7.3	일별 · 상품 수익률 기준일
2026.08.07	1,409.94	-1.9	일별 · 확인한 가장 최근 값

주: 1)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뉴욕 정오 매매율이다. 국내 매매기준율과 값이 조금 다를 수 있다.

2) 변동률은 직전 줄의 값으로 나눈 계산값이다. 2026년 최고값은 이 조사에서 연 주간 발표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다.⁷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 Foreign Exchange Rates (H.10) 주간 발표분을 정리.

이 환율에 걸린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예탁결제원 발표를 옮긴 보도가 있다.⁸ 2025년 상반기 말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1,844억 5,000만 달러다. 2024년 말보다 16.2% 많다. 이 가운데 외화주식이 1,360억 3,000만 달러다.

어느 나라 주식인지도 한쪽으로 몰려 있다. 같은 발표에서 미국이 보관금액의 78.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만 보면 미국이 92.5%다. 나머지 나라를 다 합친 것의 열두 배가 넘는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실은 증권사 문서도 있다.⁹ 2023년 5월 말 보관금액 상위 10개가 모두 미국에 상장된 펀드 상품이다. 상위 두 개가 25억 3,920만 달러와 13억 4,440만 달러였다.

돈은 지금도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 6월 국제수지를 옮긴 보도도 있다.¹⁰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5억 6,000만 달러 늘었다.

이 돈은 미국 주식값에도 걸려 있고 원·달러 환율에도 걸려 있다. 그러면 물음은 하나로 좁혀진다. **번 돈 가운데 얼마가 주가에서 왔고 얼마가 환율에서 왔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해외주식 계좌에서 달러로 산 자산의 평가액을 적어 둔다. 원화 금액이 아니라 달러 금액이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외화 잔고 화면. 통화별로 나뉘어 있다

- 2 그 달러 금액에 오늘 환율과 1년 전 환율을 각각 곱해 본다. 두 값의 차이가 환율이 만든 뉘이다.

확인하는 곳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 발표([federalreserve.gov](https://www.federalreserve.gov))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환율을 맞히려고 애쓸 일은 아니다. 지금 얼마가 걸려 있는지 아는 것과 앞으로를 맞히는 것은 다르다.

원화로 주문하면 환율은 나중에 정해진다

절차를 순서대로 편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3장에서 다룬다.

주문은 오늘 넣고 환율은 이를
뒤 아침에 정해진다. 그사이
값은 아무도 모른다.

통합증거금

원화나 다른 나라 돈을 미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주문
담보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환전은 결제일 아침에
증권사가 대신 한다.

1%

결제 자동환전에서 전 영업일 환율에
가감하는 폭

2026년 8월 13일 확인 · 신한투자증권

5%

미리 잡아 두는 환전증거금 비율

2026년 8월 13일 확인 · 메리츠증권

11개

통합증거금으로 쓸 수 있는 통화 수

2026년 8월 13일 확인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을 원화로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은 통합증거금 덕분이다. 원화와
외화를 함께 담보로 잡고 주문을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원화와 달러를
비롯해 열한 가지 통화를 담보로 쓴다고 적어 두었다.¹¹

환전은 그 뒤에 일어난다. 결제일 아침 증권사가 미리 바꿔 둔다. 이것을
가환전이라고 부른다. 이때 쓰는 값은 그날의 실제 환율이 아니다.

신한투자증권 설명서에는 전 영업일 최종고시 전신환 환율을 쓴다고 적혀
있다.¹² 거기에 1%를 더하거나 뺀다. 처리 시각은 결제일 오전 7시
10분경이다. 정산은 오전 9시 5분경부터 시작한다. 그때의 전신환 환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준다.

메리츠증권은 결제일 오전 7시 30분경 자기 회사 고시환율로 미리 바꾼다고
적었다.¹³ 정산은 오전 9시경 실시간 환율로 한다. 여유분도 함께 잡는다.
환전금액의 5%가 환전증거금이다. 800달러를 바꾸면 40달러를 더 잡아 둔다.

<표 2> 같은 절차인데 쓰는 환율도 시각도 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 세 곳의 결제 자동환전 구조, 2026년 8월 13일 확인 (단위: %)

증권사	미리 바꿀 때 쓰는 환율	미리 바꾸는 시각	정산 시각과 적용 환율	환전증거금
신한투자증권	전 영업일 최종고시 전신환에 1 가감	결제일 오전 7시 10분경	오전 9시 5분경부터 정산 시점 전신환	설명서에 없음
메리츠증권	회사가 고시하는 외화기준환율	결제일 오전 7시 30분경	오전 9시경 실시간 환율	5
미래에셋증권	설명서에 없음	설명서에 없음	설명서에 없음	설명서에 없음

주: 1)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안내 화면에는 결제일 오전 6시 20분경, 오전 9시 30분경으로 적혀 있다.¹⁴

2) 미래에셋증권 설명서에는 대상 통화와 환전지시 예약 규칙만 적혀 있다.

3) 매매기준율 대비 가감폭과 우대율은 회사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실지 않았다.

자료: 신한투자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안내, 메리츠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설명서와 해외주식 안내,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설명서를 정리.

여기까지가 직접 사는 쪽의 절차다. 투자자가 손을 대는 곳은 주문 하나뿐이다.

환율이 정해지는 자리는 이를 뒤 아침이다.

상품 쪽에는 표시가 붙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상품은 사정이 다르다. 이름 뒤에 (H)가 붙으면 환율을 막았다는 뜻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 안내에서 이 글자를 환해지의 표시로 설명한다.¹⁵ H가 붙지 않은 해외 상품은 환노출이고, 환율이 오르내린 만큼 그대로 수익에 반영된다고 적었다.

막는 데는 값이 든다. 같은 운용사의 두 상품을 보면 실제 부담이 다르다.

합성총보수가 연 0.0738%와 연 0.1353%다.¹⁶ 1인당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해 7,380원과 1만 3,530원이다. 막아 둔 쪽의 부담이 1.8배다.

산수로 보면 이렇다

같은 운용사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긴다. 환율 1,500원일 때 1만 달러를 넣었다고 하자. 환율이 1,600원이 되면 원화로 6.7% 이득이다. 1,400원이 되면 6.7% 손해다.¹⁷

주가와 겹치면 방향이 뒤집히기도 한다. 주가가 5% 올라도 환율이 1,400원이 되면 평가액은 원금보다 2% 적다. 주가로 번 것을 환율이 도로 가져간 셈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내 증권사가 결제일 몇 시에 무슨 환율로 미리 바꾸는지 읽는다.
회사마다 시각과 이름이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누리집의 통합증거금 서비스 설명서, 약관 게시판에 있다

- 2 원화로 주문할 때와 미리 환전해 두고 주문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설명서의 가환전·정산 항목, 또는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환전 시각을 맞춰 주문을 넣을 일은 아니다. 이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값이 나중에 정해진다는 사실 하나다.

3장

상품에 붙는 표기가 직접 사는 주식에는 없다

같은 지수를 따르는 두 상품을 나란히 놓고 차이의 출처를 찾는다.

상품에는 붙이도록 한 표시를,
사람이 직접 사는 주식에는
아무도 붙이지 않는다.

기초지수

상품이 따라가기로 정한
지수다. 이름이 같아도
원화로 환산해 잔 값과
달러로만 잔 값이 다르다.
월간 운용보고서에 그
수익률이 실린다.

21.09%

환노출 상품의 1년 수익률

2026년 7월 31일 기준 · 삼성자산운용

15.26%

같은 지수 환헤지 상품의 1년 수익률

2026년 7월 31일 기준 · 삼성자산운용

-8.09%

환노출 상품의 1개월 수익률

2026년 7월 31일 기준 · 삼성자산운용

한 운용사가 같은 지수를 따르는 두 상품을 나란히 판다. 기초지수는 둘 다
S&P 500 Index PR로 같다. 이름 뒤에 (H)가 붙었는지만 다르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1년 수익률은 21.09%와 15.26%다.¹⁸ 5.83%p
갈렸다. 1인당 1,000만 원이면 58만 3천 원 차이다. 한 달만 보면 -8.09%와
-0.17%로 7.92%p 갈렸다.

두 상품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수익률 차이는 환율과 헤지비용 외에 보수, 추적오차, 분배금 처리, 거래·평가시점 차이에서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관측된 차이 전부를 환율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표 3> 같은 지수를 따르는데 이름 뒤 한 글자만 다르다

한 운용사의 미국 S&P500 지수 상품 두 개, 2026년 7월 31일 기준 (단위: %, 억 원)

항목	이름에 (H)가 없는 상품	이름에 (H)가 붙은 상품	두 값의 차
기초지수	S&P 500 Index PR	S&P 500 Index PR	같음
환헤지	하지 않음	함	다름
상장일	2021.04.09	2022.12.02	1년 8개월
순자산(억 원)	97,133.30	9,545.83	10.2배
총보수(연)	0.0062	0.0099	1.6배
합성총보수(연)	0.0738	0.1353	1.8배
1개월	-8.09	-0.17	7.92%p
3개월	0.28	3.95	3.67%p
6개월	6.04	5.99	0.05%p
1년	21.09	15.26	5.83%p
연초이후	7.11	6.83	0.28%p
1년 기초지수	21.45	16.89	4.56%p

주: 1) 수익률은 세전이고 분배금을 다시 넣었다고 본 값이다. 운용보고서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2) 상장일이 달라 상장이후 수익률은 건주지 않았다. 합성총보수는 같은 운용사 안내문의 값이다.
3) 마지막 줄의 왼쪽은 원화로 환산한 지수, 오른쪽은 달러로 계산한 지수다. 이름은 같지만 계산 통화가 다르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월간 운용보고서 두 건(2026년 7월 31일 기준)과 상품 안내문을 정리.

지수 두 개를 나누면 환율 뭉이 나온다

환헤지 상품의 기초지수와 환노출 상품의 원화환산 기초지수를 비교하면 환율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상품 수익률에는 헤지 비용, 보수와 추적오차가 반영되므로 이 계산은 환율 효과의 근사치다.

1년치로 해 보면 이렇다. 원화로 환산한 지수가 21.45%, 달러 지수가 16.89%다. 나눠서 1을 빼면 3.90%다.²⁷ 이것이 계산으로 뽑은 환율 뭉이다.

세 값의 자연로그를 나누면 몫의 크기를 견줄 수 있다. 주가가 80.3%, 환율이 19.7%다. 1년 동안 번 돈 다섯 가운데 하나가 환율에서 왔다.

<표 4> 기간을 자를 때마다 환율 몫의 부호가 바뀐다

원화환산 지수와 달러 지수로 가른 주가 몫과 환율 몫 (단위: %, %p)

구간	원화환산 지수	달러 지수	계산한 환율 몫	실제 환율 변동률	두 값의 차	주가 몫 비중	환율 몫 비중
1개월 2026.06.30~07.31	-8.07	-0.04	-8.03	-7.23	0.80	0.5	99.5
3개월 2026.04.30~07.31	0.35	4.23	-3.72	-2.78	0.94	내지 않음	내지 않음
6개월 2026.01.30~07.31	6.19	6.72	-0.50	-0.53	0.03	내지 않음	내지 않음
연초이후 2025.12.31~2026.07.31	7.29	7.70	-0.38	-0.54	0.16	내지 않음	내지 않음
1년 2025.07.31~2026.07.31	21.45	16.89	3.90	2.91	0.99	80.3	19.7
상장이후 2021.04.09~2026.07.31	150.73	확인하지 못함	낼 수 없음	28.2	낼 수 없음	73.0	27.0

주: 1) 계산한 환율 몫은 두 지수 수익률에 각각 1을 더해 나눈 뒤 1을 뺀 값이다.
2) 실제 환율 변동률은 H.10 일별 값으로 낸 값이다. 표 1에 없는 2026년 4월 30일 1,477.93원과 1월 30일 1,444.51원도 썼다. 지수의 환율 고시 시각과 뉴욕 정오 고시가 달라 최대 1.0%p 어긋난다.¹⁹
3) 비중은 각 몫에 1을 더한 값의 자연로그를 나눈 값이다. 두 몫의 부호가 다른 구간은 비중이 100%를 넘어 뜻이 없으므로 내지 않았다.
4) 상장이후 구간은 달러 지수 값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환율 변동률로 갈랐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주가 몫은 95.6%다.²⁸
자료: 삼성자산운용 월간 운용보고서 두 건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 발표를 정리.

표를 가로로 읽으면 부호가 바뀐다. 1년으로 자르면 환율이 수익을 3.90% 보태 준다. 석 달로 자르면 3.72% 깎는다. 한 달로 자르면 8.03% 깎는다.

기간을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 환율은 벌어 주기도 하고 뺏어 가기도 한다. 같은 돈, 같은 주식인데 그렇다.

시점을 바꾸면 순서까지 뒤집힌다

여덟 달 전 자료를 보면 차이가 더 컸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1년 수익률은 20.87%와 11.96%였다.²⁰ 8.91%p 벌어진 값이다.

2026년 7월 31일에는 그 격차가 5.83%p로 줄었다. 한 달 수익률만 보면 순서가 아예 뒤집혀 환노출 상품이 7.92%p 뒤진다. 환율이 내린 달에는 막아둔 쪽이 앞선다.

다른 운용사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온다. 2026년 8월 13일 기준 1개월 수익률이 -3.36%와 2.20%다.²¹ 다만 이 두 상품은 기초지수의 배당 처리가 서로 달라, 차이를 모두 환율 몫으로 부를 수 없다.

돈은 표시가 없는 쪽에 몰려 있다

순자산을 보면 어느 쪽에 사람이 몰렸는지 드러난다. 같은 운용사에서 환노출 상품이 9조 7,133억 원, 환헤지 상품이 9,546억 원이다. 환노출 쪽이 10.2배 크다.

다른 운용사는 격차가 더 크다. 20조 6,213억 원과 4,590억 원으로 44.9배다.²² 환율에 그대로 걸린 돈이 훨씬 많다.

같은 표시가 직접 사는 주식에는 없다

여기까지는 상품 이야기다. 상품에는 환헤지 여부가 이름에 박혀 있다. 운용보고서에는 기초지수 이름이 적혀 있다. 원화로 켄 지수와 달러로 켄 지수의 수익률도 나란히 실린다.

개별 해외주식에는 펀드 상품명과 같은 환헤지 표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는 거래내역의 실제 환전환율과 원화·외화 평가손익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품은 환헤지 여부를 이름의 (H) 표기로 알린다. 개별 해외주식에는 이 표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사별로 제공 화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전내역과 원화·외화 손익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상품에는 표기 규칙이 있고 직접 매매에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구조다.

계산한 환율 뒤편과 실제 환율 변동률이 왜 어긋나는가

표 4에서 두 값은 구간마다 다르게 벌어진다. 6개월은 0.03%p, 연초이후는 0.16%p로 거의 맞는다. 1개월은 0.80%p, 3개월은 0.94%p, 1년은 0.99%p로 벌어진다.

지수를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은 지수 산출기관이 정한 시각의 고시값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은 뉴욕 정오 값이다. 두 시각 사이에 값이 움직인 만큼 차이가 생긴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지수 산출기관이 쓰는 고시 시각과 환율의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점이 아니라 환율 뒤편의 크기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가지고 있는 해외지수 상품의 이름 뒤에 (H)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환율이 그대로 반영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보유종목 이름, 또는 운용사 누리집의 상품 상세

- 2 그 상품의 월간 운용보고서에서 기초지수 수익률을 읽는다. 상품 수익률과 나란히 실려 있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누리집의 공시·운용보고서 게시판

- 3 개별 해외주식을 들고 있다면 산 날의 환율을 따로 적어 둔다. 화면에 남지 않는 값이다.

확인하는 곳 · 거래내역의 체결일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 발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어느 쪽이 좋은지 지금 정할 일은 아니다. 두 값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다.

다른 나라는 낱말로 적는다

같은 자산을 담고 환헤지 여부만 다른 상품을 어떻게 알리는가.

한 글자로 알리는 나라가 있고
낱말로 알리는 나라가 있다.
읽는 사람의 부담이 다르다.

연환산 수익률

여러 해 동안의 수익을 한 해
평균으로 바꾼 값이다.
5년에 걸쳐 번 돈을 해마다
얼마씩 번 셈인지로 고쳐
적는다.

51.46%

미국 상장 환헤지 상품의 1년 수익률
2026년 6월 30일 기준 · BlackRock

29.89%

같은 나라 주식 환노출 상품의 1년
수익률
2026년 6월 30일 기준 · BlackRock

0.49%

두 상품이 똑같이 받는 보수
2026년 6월 30일 기준 · BlackRock

미국에도 같은 짝이 있다. 같은 나라 주식을 담고 환헤지 여부만 다른 두
상품이 나란히 상장돼 있다. 이름에는 Currency Hedged라는 낱말을 그대로
적는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1년 연환산 수익률은 51.46%와 29.89%다.²³
21.57%p 갈렸다. 10년으로 늘려도 17.27%와 9.54%로 7.73%p 갈린다.
10년 평균으로 해마다 그만큼 갈렸다는 뜻이다.

두 상품의 보수는 0.49%로 같다. 순자산은 환노출 쪽이 223억 달러, 환헤지
쪽이 7억 달러다. 30배가 넘는다. 사람이 물리는 쪽이 환노출인 것은 국내와
같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안내문에서 환율을 수익의 구성 요소로
못박는다. 달러와 투자 대상국 돈의 환율이 바뀌면 수익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적었다.²⁴ 다만 환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일본은 낱말로 더 길게 적는다. 같은 자산을 담는 펀드를 환헤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눈다. 그 사실을 상품 이름 뒤에 일본어 낱말 그대로 붙인다.²⁵
설명서 본문에도 환헤지를 한다는 문장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나란히
적는다.

<표 5> 한 글자로 알리는 나라와 낱말로 알리는 나라

같은 자산을 담고 환헤지 여부만 다른 상품의 이름 표기 (단위: %)

나라	이름에 적는 방식	상품 짝	수익률	보수(연)
한국	이름 뒤 괄호 안에 글자 하나	같은 미국지수 상품 두 개	1년 15.26과 21.09	0.0099와 0.0062
미국	이름 안에 Currency Hedged라는 낱말	같은 나라 주식 상품 두 개	1년 51.46과 29.89 10년 17.27과 9.54	0.49로 같음
일본	이름 뒤에 환헤지가 있다· 없다는 낱말	같은 금 펀드 두 가지	확인하지 못함	확인하지 못함

주: 1) 한국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이고 연으로 바꾸지 않은 값이다. 미국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연환산 값이다. 기준일과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칸에서 직접 견주지 않는다.

2) 한국과 미국 모두 앞 값이 환헤지 상품, 뒤 값이 환노출 상품이다.

3) 일본 사례는 이름 표기 방식을 보려고 실었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월간 운용보고서, BlackRock iShares 상품 설명서 두 건, SBI 아셋매니지먼트 투자신탁설명서를 정리.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알림의 길이다. 한국은 글자 하나, 미국은 영어 두 낱말, 일본은 일본어 낱말이다. 어느 쪽도 개별 해외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에게는 불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미국에 상장된 상품을 들고 있다면 이름에 Hedged가 들어 있는지 본다. 없으면 환노출이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누리집의 상품 설명서. 벤치마크 이름에도 적혀 있다

2 같은 나라 주식을 담은 두 상품의 10년 수익률을 나란히 놓고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설명서의 연환산 수익률 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난 10년의 차이가 다음 10년에도 같으리라고 볼 근거는 없다. 방향을 외울 일이 아니다.

환손익 표기와 비교 기준의 개선 과제

상품과 직접 매매에서 환율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정리한다.

환 손익을 갈라 적는 일은 새 정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값을 나눠 적는 일이다.

합성총보수

상품에 적힌 총보수에 매매·보관 비용 등 실제로 빠져나가는 몫을 더한 값이다.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크기에 더 가깝다.

20조 6,213억 원

다른 운용사 환노출 상품의 순자산
2026년 8월 13일 · 미래에셋자산운용

4,590억 원

같은 지수 환헤지 상품의 순자산
2026년 8월 13일 · 미래에셋자산운용

0.1353%

환헤지 상품이 한 해에 부담하는
합성총보수
2026년 7월 24일 · 삼성자산운용

바뀌야 할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표기 규칙이다. 네 가지를 든다.

첫째, 직접 사는 해외주식에도 환 손익을 갈라 적는다

증권사는 이미 두 값을 다 안다. 체결일과 체결 환율, 결제일과 정산 환율이 회사 안에 남아 있다. 평가 화면에서 원화 손익 아래 한 줄을 더 두면 된다. 추가로 생긴 몫과 환율로 생긴 몫을 나눠 적는 일이다.

새 정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가진 값을 나눠 적는 일이다. 상품 쪽에는 이 나눔이 이미 서식으로 있다.

둘째, 자동환전에 쓰는 환율을 한 자리에 모아 적는다

표 2에서 보듯 회사마다 쓰는 환율의 이름이 다르다. 전 영업일 최종고시 전신환에 1%를 가감하는 곳이 있고, 자기 회사 고시환율을 쓰는 곳이 있다. 시각도 오전 6시 2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갈린다.

이름과 시각과 가감폭을 같은 서식으로 적으면 회사를 견줄 수 있다. 지금은 문서마다 표현이 달라 같은 칸에 놓기 어렵다.

셋째, 두 상품의 비용을 같은 칸에서 견주게 한다

총보수만 보면 연 0.0062%와 연 0.0099%로 차이가 작아 보인다. 실제로 부담하는 합성총보수는 연 0.0738%와 연 0.1353%다. 총보수의 열 배가 넘는 크기다.

헤지 비용은 이 값에도 다 담기지 않는다. 운용사는 헤지 비용이 따로 들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다르고, 그 값을 나란히 놓은 공시 서식이 없다.

넷째, 글자 하나 대신 낱말로 적는다

(H)는 아는 사람에게만 뜻이 통한다. 미국은 Currency Hedged라고 적고 일본은 환헤지가 있다·없다를 낱말로 적는다. 이름이 길어지는 대신 처음 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다.

왜 이 일이 지금 걸리는가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지나간 사실이 적혀 있다.²⁶ 2026년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약 75조 원이었다. 같은 자료는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고유 요인이 환율을 약 75원 밀어 올렸다고 적었다.

환율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개인은 그 움직임이 자기 뒤편에서 얼마였는지를 화면에서 볼 수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개별 해외주식 잔고 화면에 환 손익을 따로 적도록 하는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다.²⁹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증권사 잔고 화면에 환 손익 줄이 생기는지다. 다른 하나는 자동환전 환율의 이름과 시각을 같은 서식으로 적는 곳이 늘어나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증권사 고객센터에 환 손익을 따로 보여 주는 화면이 있는지 묻는다.
없다면 그 답을 그대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앱의 문의하기

- 2 상품을 고를 때 총보수 대신 합성총보수를 건준다. 두 값의 크기가 열배 넘게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누리집의 상품 안내문과 월간 운용보고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쓰는 증권사를 옮길 일은 아니다. 어느 회사도 이 줄을 두고 있지 않다.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이 보고서는 어느 상품을 사라거나 팔라고 권하지 않는다.

산 날의 환율을 적어 두는 것
하나로, 화면에 없는 몫을
스스로 썰 수 있다.

1,436.81원

2026년 7월 31일 원·달러 환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 H.10

1,396.19원

1년 전 같은 날 원·달러 환율
2025년 7월 31일 · 같은 자료

1,444.55원

올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환율
2025년 12월 31일 · 같은 자료

달러 평가액에 두 날짜의 환율을 각각 곱해 건주면 된다. 위 세 값이 그 기준이 된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해외주식 잔고를 달러 금액으로 적는다. 원화 금액에는 환율이 이미 섞여 있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외화 잔고 화면. 통화별 잔고로 볼 수 있다
- 2 산 날의 환율을 찾아 적어 둔다. 거래내역의 체결일을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 발표([federalreserve.gov](https://www.federalreserve.gov))
- 3 달러 잔고에 산 날 환율과 오늘 환율을 각각 곱해 뺀다. 그 차이가 환율이 만든 뭉이다.**
확인하는 곳 · 계산기 하나면 된다. 종목별로 나눌 일은 아니다
- 4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품을 들고 있다면 이름 뒤 (H)와 기초지수 수익률을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운용사 누리집의 상품 상세와 월간 운용보고서
- 5 원화로 주문한다면 결제일 아침 몇 시에 환율이 정해지는지 읽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누리집의 통합증거금 서비스 설명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환율을 맞춰 사고파는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니다. 환헤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다섯 가지는 지금 무엇에 걸쳐 있는지 아는 절차이지 매매 판단이 아니다.

세 가지 오해

첫째, 환율이 오르면 언제나 이득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1개월 구간에서는 환노출 쪽이 7.92%p 뒤졌다.

둘째, 환헤지 상품이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니다. 헤지 비용이 들고, 환율이 오른 해에는 그만큼 덜 번다. 1년 구간에서 5.83%p 덜 벌었다.

셋째, 이름에 (H)가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직접 사는 주식에는 그 표시가 아예 없다.

언제 다시 보면 되는가

1년에 두 번이면 넉넉하다. 6월 말과 12월 말에 달러 잔고와 그날 환율을 적어 둔다. 두 시점을 건주면 환율 뭉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환헤지

환율이 오르내려도 원화로 잔 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두는 것이다. 국내 상장 상품은 이름 뒤에 (H)를 붙여 알린다.

환노출

환율 변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평가액이 늘고 내리면 줄어든다.

기초지수

상품이 따라가기로 정한 지수다. 이름이 같아도 원화로 환산해 잔 값과 달러로만 잔 값이 다르다.

통합증거금

원화나 다른 나라 돈을 미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주문 담보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가환전

결제일 아침에 증권사가 미리 바꿔 두는 것이다. 그날 오전에 실제 환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주고받는다.

환전증거금

환율이 움직일 것에 대비해 미리 더 잡아 두는 돈이다. 환전금액의 5%로 적어 둔 회사가 있다.

전신환 환율

현금이 아니라 계좌 사이로 돈을 옮길 때 쓰는 환율이다. 은행이 하루에 여러 번 고친다.

총보수와 합성총보수

총보수는 상품에 적힌 운용·판매 보수의 합이다. 합성총보수는 매매·보관 비용까지 더한 값이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reign Exchange Rates (H.10) 2026년 발표분 열 건.
08.12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current/>), 08.0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803/>), 07.1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713/>), 07.06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706/>), 06.29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629/>), 06.22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622/>), 06.15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615/>), 05.04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504/>), 02.02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202/>), 01.05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60105/>) (확인 2026.08.13)
2. [1차] 같은 자료 2025년 이전 발표분 여섯 건. 2025.08.04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50804/>), 2025.01.06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50106/>), 2024.01.02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40102/>), 2023.01.0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30103/>), 2022.01.0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20103/>), 2021.01.04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10104/>) (확인 2026.08.13)
3. [1차] 같은 자료 2021년 4월 12일 발표분. federalreserve.gov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20210412/>) (확인 2026.08.13)
4. [1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reign Exchange Rates G.5A 연평균 두 건. 2026.01.05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5a/current/default.htm>), 2022.01.0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5a/20220103/>) (확인 2026.08.13)
5. [1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reign Exchange Rates G.5 월평균(2026.08.03 발표분).
federalreserve.gov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5/current/default.htm>)
(확인 2026.08.13)
6. [1차]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월간 운용보고서(2026.07.31 기준).
samsungfund.com
(https://m.samsungfund.com/sheet/20260805/2ETFE4_20260731.pdf) (확인
2026.08.13)
7. [1차]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H) 월간 운용보고서(2026.07.31 기준).
samsungfund.com
(https://m.samsungfund.com/sheet/20260805/2ETFI3_20260731.pdf) (확인
2026.08.13)
8. [1차]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선물(H) 월간 운용보고서(2026.07.31 기준).
samsungfund.com
(https://m.samsungfund.com/sheet/20260805/2ETF50_20260731.pdf) (확인
2026.08.13)
9. [1차] 삼성자산운용, 같은 두 상품의 2025년 11월 30일 기준 월간 운용보고서. 환노출
(https://m.samsungfund.com/sheet/20251204/2ETFE4_20251130.pdf), 환헤지
(https://m.samsungfund.com/sheet/20251204/2ETFI3_20251130.pdf) (확인
2026.08.13)
10. [1차]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기초가이드 (H)와 (UH). samsungfund.com
(<https://www.samsungfund.com/etf/insight/guide/view07.do>) (확인 2026.08.13)

11. [1차] 삼성자산운용, 「해외 투자 필수 상식 · 환헤지(H)와 환노출」 (2026.07.24).
samsungfund.com (<https://www.samsungfund.com/etf/insight/newsroom/view.do?seq=78193>) (확인 2026.08.13)
12. [1차]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상품 상세(2026.08.13 기준).
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360750004>) (확인 2026.08.13)
13. [1차]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H) 상품 상세(2026.08.13 기준).
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tigeretf/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448290007>) (확인 2026.08.13)
14. [1차] 신한투자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안내」 약관·설명서. shinhanssec.com
(https://file.shinhanssec.com/filedoc/clause/FS_deposit.pdf) (확인 2026.08.13)
15. [1차] 메리츠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설명서」 (심의필 제25-117호). imeritz.com
(<https://home.imeritz.com/include/resource/bbs/contents/bascGrp/help13/20250227/yk25022702.pdf>) (확인 2026.08.13)
16. [1차]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안내」. imeritz.com
(https://home.imeritz.com/fstock/ForeignStock01_07.do) (확인 2026.08.13)
17. [1차]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설명서」. miraeasset.co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2/n10.do>) (확인 2026.08.13)
18. [1차] 미래에셋증권이 실은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외화증권 주식 상위 50개(2023.05.31 기준). miraeasset.co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108663.pdf?attachmentId=2108663>) (확인 2026.08.13)
19.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nvestor Bulletin: International Investing(2012.07).
sec.gov (<https://www.sec.gov/investor/alerts/internationalinvestingbulletin.pdf>) (확인 2026.08.13)
20.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nternational Investing(Investor.gov). investor.gov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investing-basics/investment-products/international-investing>) (확인 2026.08.13)
21. [1차] BlackRock, iShares Currency Hedged MSCI Japan ETF 상품 설명서(2026.06.30 기준). ishares.com (<https://www.ishares.com/us/literature/fact-sheet/hewj-ishares-currency-hedged-msci-japan-etf-fund-fact-sheet-en-us.pdf>) (확인 2026.08.13)
22. [1차] BlackRock, iShares MSCI Japan ETF 상품 설명서(2026.06.30 기준). ishares.com
(<https://www.ishares.com/us/literature/fact-sheet/ewj-ishares-msci-japan-etf-fund-fact-sheet-en-us.pdf>) (확인 2026.08.13)
23. [1차] SBI 아셋매니지먼트, 투자신탁설명서 금 펀드 환헤지·환노출(사용개시일 2024.03.07).
sbiam.co.jp
(<https://www.sbiam.co.jp/fund/pdf/3826911205b78f1d01d038a23c0dcdca5b0366fe.pdf>) (확인 2026.08.13)
24. [1차]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6.06.15).
kcmi.re.kr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year=2026&zcd=002001016&zno=1920&cno=6790) (확인 2026.08.13)
25. [2차] 뉴시스(2025.07.14)와 글로벌뉴스통신 · 2025년 상반기 보관금액 교차 확인.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4_0003251447), 글로벌뉴스통신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56>) (확인 2026.08.13)

26. [2차] 뉴스핌(2026.08.06)과 헤럴드경제 · 한국은행 2026년 6월 국제수지 교차 확인.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6000039>),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2364>) (확인 2026.08.13)
27. [2차] 한국금융신문(2025.10.27) · 2025년 3분기 보관금액. 본문에 쓰지 않았다. kbanker.co.kr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5>) (확인 2026.08.13)
28. [2차] 국민일보 · 2026년 4월 해외주식 순회수. 본문에 쓰지 않았다. kmib.co.k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929847>) (확인 2026.08.13)
29. [2차] 파이낸셜뉴스(2026.05.07)와 서울파이낸스 · 보관금액 보도 두 건. 본문에 쓰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5071822292088>),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455>) (확인 2026.08.13)

확인한 자료는 모두 48건이고 그중 1차가 40건이다. 1차 비율은 83.3%다. 2차 자료의 숫자는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맞춰 본 것만 본문에 실었다.

각주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H.10, 2021년 1월 4일 발표분. 단위는 달러당 원화다.
2. 같은 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분의 7월 31일 값이다. 32.3%는 1,436.81원을 1,086.11원으로 나눈 계산값이다.
3. 같은 기관 G.5A 연평균. 2018년 1,099.2926원, 2021년 1,144.8911원, 2025년 1,421.3963원이다. 24.2%는 뒤 두 값을 나눈 계산값이다.
4. 같은 기관 H.10 2026년 7월 6일 발표분. 7월 2일 1,538.05원도 함께 실려 있다.
5. 같은 기관 H.10 2026년 8월 12일 발표분. 9.1%는 1,409.94원을 1,550.59원으로 나눈 계산값이다.
6. 같은 기관 G.5 월평균. 2025년 7월은 1,379.2959원이다.
7. 이 조사에서 연 H.10 주간 발표분은 열일곱 건이다. 일별 시계열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8. 한국예탁결제원 2025년 7월 14일 발표를 옮긴 뉴시스·글로벌뉴스통신 보도다. 2024년 말 값은 1,587억 2,000만 달러다.
9. 미래에셋증권이 실은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자료다. 2023년 5월 31일 기준이므로 시점이 다른 값과 견주지 않았다.
10. 한국은행 2026년 8월 6일 발표를 옮긴 뉴스핌·헤럴드경제 보도다. 두 곳이 같은 값을 실었다.
11.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설명서. 원화와 달러를 비롯한 열한 가지 통화가 적혀 있다.
12. 신한투자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안내. 가환전과 정산 시각이 설명서에 적혀 있다.
13. 메리츠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설명서. 심의필 제25-117호, 심의일 2025년 2월 26일이다.
14.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안내 화면. 두 문서의 시각 표기가 다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15.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기초가이드. 국내 상품에는 붙지 않고 해외 자산을 담은 상품에만 붙는 표시로 적혀 있다.
16. 삼성자산운용 2026년 7월 24일 안내문. 1.8배는 0.1353%를 0.0738%로 나눈 계산값이다.
17. 같은 안내문의 예시다. 환율 1,500원에 1만 달러를 넣은 경우로 계산한 값이다.
18. 삼성자산운용 월간 운용보고서 두 건. 세전이고 분배금을 다시 넣었다고 본 값이다. 5.83%p와 7.92%p는 두 값을 뺀 계산값이다.
19. 지수 산출기관이 쓰는 환율 고시 시각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값 가운데 어느 쪽도 옳다고 적지 않았다.
20. 삼성자산운용 2025년 11월 30일 기준 월간 운용보고서 두 건. 8.91%p는 두 값을 뺀 계산값이다.
21.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 상세 두 건. 기초지수 표기가 S&P 500 Index와 S&P 500 Index(Total Return)로 달라 배당 처리가 다르다.
22. 같은 자료의 순자산이다. 44.9배는 206,213억 원을 4,590억 원으로 나눈 계산값이다.
23. BlackRock iShares 상품 설명서 두 건. 30배는 순자산 두 값을 나눈 계산값이다.
2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nvestor.gov 안내와 2012년 7월 투자자 게시문. 환전 비용의 크기는 적혀 있지 않다.
25. SBI 아셋매니지먼트 투자신탁설명서. 상품 이름 뒤에 환해지가 있다·없다를 일본어 낱말로 붙였다.

26.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6월 15일 발표 자료.
이 보고서는 지나간 사실만 인용하고 전망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27. 표 4의 1년 환율 뒀 3.90%는 1.2145를
1.1689로 나눈 뒤 1을 뺀 계산값이다. 비중은
세 값의 자연로그를 나눈 값이다.
28. 상장이후 구간의 28.2%는 1,436.81원을
1,120.84원으로 나눈 계산값이다. 주가 뒀
95.6%는 2.5073을 1.2819로 나눈 값이다.
29. 개별 해외주식 잔고 화면에 환 손익이 따로
뜨는지는 증권사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표기 규칙이 없다는 사실까지만 적었다.



제목	환헤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지수 상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10 · NEXUS Research 2026_10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환헤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지수 상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넥서스 리서치 2026_10, 2026.
수정 이력	2026년 8월 14일 · 수익률 차이의 원인과 환손익 확인 방법 교정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